

익산시, 청년·다자녀 가정 수당 신설

정현울 시장, 인구 28만명 사수 위해 종합대책 추진 1년 이상 근무 18~39세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익산시가 인구 28만명 사수를 위한 인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울 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에 다가 올 인구 28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청년수당과 다자녀가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인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 수당은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한다.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씩을 출생 후 5년 동안 총 600만원을 준다.

이는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과는 별도로.

정 시장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청년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광지와 여가활동 공간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안정을 위해 분양가 800만~900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1만6000여기수도 시민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이 익산으로 이를 옮기는 ‘주소바로 갖기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인구는 2018년 30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 8월 말 28만3000여명까지 떨어지는 등 급격한 감소를 나타낸다.



지난달 28일 정현울 익산시장(가운데)이 인구 28만명 붕괴를 막기 위한 인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정 시장은 “인구 28만명이 무너지면 당장 교부세 감액, 행정기구 축소가 이뤄지고 장기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 도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행정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시민이 함께 내 일처럼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코로나19·수해 극복 위문품 잇따라

구례CCTV업체, 6억원 상당 TV·CCTV 기부



구례군은 CCTV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역대급 홍수피해를 입은 구례에 2억9535만원 상당의 TV와 CCTV를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기부받은 CCTV는 총 425대로 2억6755만원 상당이다. 한화테크윈에서 200대, 제이더블유에서 125대, 웹게이트에서 100대를 기부했다.

32인치 TV는 총 139대로 2780만원 상

당이다. 한국CCTV사업자협회에서 102대, 한국CCTV연구소에서 20대, 한국영상정보처리기기협동조합에서 17대를 기부했다.

CCTV 산업계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석을 맞이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고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백제가요 정음사문화제 ‘여인제례’ 봉행 유튜브 생중계

정음시 대표 축제인 ‘제31회 정음사문화제’가 대폭 축소, 지난달 26일 제례 행사만으로 치러졌다.

4일 (사)정음사문화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제31회 정음사문화제’를 지난달 26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규모를 줄여 ‘안전한 축제’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동농악을 시작으로 시립무용단 공연, 칠선녀의 채수 의례, 채수한 물을 망부사 사우에서 제향하는 여인제례 등이 봉행됐다.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 ‘정음See’를 통해 중계됐다.

조택수 제전위원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어 많은 프로그램을 취소했다”며 “하지만 정음을 대표하는 문화제인만큼 행사를 전면 취소하지 않고 채수 의례 및 여인제례만으로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달 26일 제31회 정음사문화제에서 칠선녀들이 채수 의례를 하고 있다. <정음사문화제추진위 제공>

고흥군의회, 김 170 상자 구례 수재민에 전달



고흥군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군 수재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위문품은 김 170상자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진 구례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송영환 고흥군의회 의장은 “지난 폭우로 많은 고통을 겪은 구례군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창군, 장류원료 생산농가에 장려금

순창군, 17억원 투입 고추·논콩 재배 확대

순창군은 군비 17억원을 들여 장류 원료(고추·논콩) 생산농가에 생산 및 유통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산 장류 원료 재배를 확대, 장류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장류 산업 발전,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달 추석 전에 고추 재배 농가 1009곳(203ha)에 3억5000만원의 생산 장려금 지급을 완료했다. 고추 유통 장려금과 논콩 생산 장려금은 11월, 논콩 유통 장려금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생산 장려금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 내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에, 유통 장려금은 계약재배 등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고추 생산 장려금은 ha당 150만원, 유통 장려금은 50만원을 지원하며, 논콩은 생산 장려금 ha당 200만원, 유통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순창군은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 민간 종자회사와 협력해 고추·콩 품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콩·고추 품종 중간평가회를 가졌으며 최종 평가를 통해 지역내 우수 품종을 선정·공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순창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에 맞는 고추·콩 품종 개발과 재배 확대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장류 업체의 차별화된 장류 제품 생산으로 순창 장류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에 전국 첫 바지락종자 생산시설 구축

고창군은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사업인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35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 패류 종자(바지락)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창군은 전국 바지락의 77% 이상이 생산되지만, 최근 새만금 담수화 등 해양 환경변화로 국내산 바지락 종자 공급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 시설이 갖춰지면 중국산 바지락 종자 수입대체 효과와 경영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고창군은 기대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북도와 협력해 지역 어장에 적합한 바지락 우량 종자를 양식 어가에 공급해 전국 바지락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경매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